

청소년 자서전 창작 지도 방안 및 사례 분석

- 미래 자서전 쓰기를 중심으로 -

최선녀*

Ⅱ 차례 Ⅱ

- I. 서론
- II. 자서전의 개념과 이해
- III. 자서전 쓰기 수업 모델과 지도 방향
- IV. 자서전 작품과 후기 사례 분석
- V. 결론

【국문초록】

1인 출판사의 창업이 늘어가고 있는 지금 자서전을 쓰고자 하는 계층은 점점 늘어가고 있다. 자서전은 인생에 대한, 인생을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자서전 쓰기교육은 질풍노도를 거치며 참자이를 찾아기는 청소년 시기에 인성 교육과 문학교육을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자서전 쓰기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파이네가 제시한 후향, 전향, 분석, 종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설계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서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청소년에게 있어 미래 자서전 쓰기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수업 모델을 제시한다. 이때 책 만들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사 표현 방식의 다양화를 유도하며 경험을 통한 자신과의 소통,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 결과물을 분석한 결과는 이러하다. 기본적으로 자서전의 원리이기도 한 자아회상의 원리, 선택의 원리, 자기 진실성의 원리,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거리두기의 원리, 자아성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찰을 통한 의미발견의 원리, 관계성의 원리, 통일성의 원리 등이 나타난다. 학생들은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주로 과거-현재-미래가 모두 나타나는 유형을 선호하고, 화제에 따른 서술보다는 진실성을 우선시하여 연대기적 서술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사건의 상당 부분은 성적, 친구, 이성문제가 차지를 하며, 미래에 대한 설계는 막연한 경향이 있고, 죽음으로 성급하게 결말을 맺는 경우도 있어 1, 2차시에서 창작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기타 자서전 쓰기는 자기 또는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삶의 이해, 경험을 통한 미래 설계, 다양한 서사표현, 글쓰기 흥미 상승, 자신감 상승의 효과 등이 있다.

주제어 : 자서전, 미래자서전, 자기 서사, 자아정체성, 장르글쓰기, 책만들기

I. 서론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머지않아 종이책이 사장(死藏)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과 함께 전자책 출판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1인 출판사 창업증가로 책쓰기 열기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자서전 쓰기 열풍 또한 가속화 되고 있다.

자서전은 작가의 인생에 대한 기술이자, 이미 살아온 시간에 대한 기록이고, ‘나’를 만들어준 사람과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¹⁾ 이는 비단 노인층에만 해당하는 현상이 아니며 국어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자서전 영역’이 등장하게 된 것 또한 이러한 시대적 맥락의 한 흐름이라 볼 수 있다. 자서전의 필수 요소인 ‘자아 성찰’은 자기 이해의 지름길이자 현대 교육에서 소홀히 한 인성교육의 시작으로, 건전한 인격 형성을 위한 국어교육의 영역이다.

교육학의 관점에서도, 자서전은 “개인의 성장과 자아 형성 과정을 담고

1) 린다 스펜스, 황지현 옮김, 『내 인생의 자서전 쓰는 법』, 고즈원, 2008, p.12.

있는 살아있는 자료로 청소년들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²⁾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서전 쓰기는 노인층이나 중년층만이 아닌 청소년들에게도 자아 형성과 자아 성찰, 미래 설계라는 인성교육의 중요한 바탕을 마련해준다.

지금껏 문학교육의 목표는 이론을 중시하는 지식 중심에서 “소통과 경험을 중시하는 활동 중심으로 변모되어 왔다.”³⁾ 그러나 이러한 문학교육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여서 문제가 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험을 중심으로 한 문학교육인 자서전 쓰기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자아형성과 진로탐색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딜타이⁴⁾는 개인이 욕망에 빠져 자신의 삶 중 일부분만을 보게 되어 스스로 소외되어가는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삶의 ‘연관’(聯關, Zusammenhang)을 언급하면서 자서전에 주목한다. 프리츠 파펜하임⁵⁾은 “현대인들이 자아를 세계와 분리하여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소외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 역시 자아와 세계의 관계 이해에 중점을 두는 자서전 창작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연구에 앞서 필자가 여러 층을 대상으로 창작 지도를 해오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점이 있다면 글을 잘 쓰는 경우든 아니든 누구나 창작에 대한

2) 손승남, 「자서전의 교육학적 가치」, 『교육철학』 제28집, 교육철학회, 2002, p.110.

3) 남민우, 「문학교육 목표 변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고등학교 문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권 22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pp.131-136.

4) W. Dilthey, 이한우 역, 『체험 · 표현 · 이해』, 책세상, 2009, pp.33-34. 딜타이는 자서전이 인간의 개인적인 생애를 뛰어넘어 작가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이룩한 자기 성찰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회고를 통해 생애를 고찰함으로써 개개의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삶을 온전히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5) 프리츠 파펜하임, 황문수 역, 『현대인의 소외』, 문예출판사, 1994, pp.8-9.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초보의 경우는 정도가 더욱 심한데 자신이 창작해 보지 않은 장르의 경우 더욱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그러한 이들도 자신에게 있었던 일로 글을 쓰게 하면 쉽게 소재를 찾고 어려움 없이 이야기를 이어 갔다.⁶⁾ 그러므로 자서전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는 이유 때문에 창작의 영역에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이후 글쓰기의 경험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이는 글을 쓰는 데 대한 낯설음과 창작에 대한 거리감을 줄여 줄 수 있다.⁷⁾

본 연구에서 계획하는 미래 자서전 쓰기는 학생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찾고 미래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기존 자서전과의 구분이 필요한 경우 ‘미래 자서전’이라 명명할 것이다. 서사의 표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식을 추구할 것이다.

혹자는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소재로 하는 것이 어떻게 자서전일 수 있는 반문을 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교육적 필요뿐 아니라 자서전이 사실을 소재로 하였으나 창작이라는 점에서 100% 사실이란 있을 수 없는 현대 자서전의 특성⁸⁾을 근거로 그 존재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 자서전은 과거의 재구성성이 아니라 해석이며, 과거에 대한 회상 자체는 철저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 기록물과는 다르다. 따라서 모든 자서

6) 자서전 창작의 근간이 되는 적극적인 회상을 위해 음식, 옷, 장소, 선택등과 관련되는 기억 찾거나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 뒤 그것과 관련 있는 기억들로 쓰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7)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작년에 책쓰기 동아리를 했던 학생의 경우 혼자서 한 권의 책을 쓰고 싶다며 도전하는 학생이 두 명이나 되었고, 한 번 참여한 학생이 두 번째 참여할 경우 창작에 대한 부담감은 훨씬 줄어들었다. 또한 2학년의 경우 다음해에도 책쓰기 동아리를 선택하였다.

8) 이는 홀텐리트가 주장한 1970년대 자서전의 현대적인 특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전은 진실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할 지라도 미약하게나마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 즉 허구가 잠재적으로든 표면적으로든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이며 자아정체성 확립에도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과거와 현재는 사실에 근거하여 자신을 파악하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미래는 허구가 주를 이룰 수밖에 없으나 그 허구 역시 과거와 현재라는 경험과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가 설정한 미래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학 텍스트를 통해 세계와 교섭하는 일은 소통의 측면에서 일상의 경험과 유사하다. 경험의 서사화는 바로 ‘나’를 중심으로 경험을 관계지어보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평소 자기 삶에 관심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습관을 학생들에게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판단하여, 미래를 설계하도록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의 작품과 후기를 통해 이러한 자서전 쓰기 수업의 특성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기존에도 이루어져 왔으나 미래를 중심으로 자서전을 설계하는 경우는 드물며 실제 수업에 적용하거나 수업에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예 또한 빈약한 편⁹⁾이었고, 그 결과를 책으로 만드는 경우¹⁰⁾는 더욱 찾기 어렵다는 점

9) 자서전과 교육을 접목시킨 연구는 주로 2000년대에 들어와 이루어졌다. 이원구의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서전 쓰기에 접근하였으나 실제 지도 사례가 없어 아쉽다. 손승남(2002)은 자서전의 교육적 가치를 논의하였다. 또한 교육학적 관점에서 자서전 쓰기가 개인 성장의 살아 있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하였다. 천정은(2004)은 자서전의 장르적 정체성을 규명하고, 특히 청소년 자서전의 특수성을 언급하였으나 실제 적용사례가 없다. 김순미(2004)는 자서전 쓰기의 인성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여 학습에 적용하였으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한계다. 정혜진(2007)은

또한 본 연구가 존재할 이유이다.

책 만들기는 “독서 의욕을 제고하고, 도서관 이용을 자극하고,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학습 능력과 태도에 대한 효과, 내면 성장 및 생활 개선 효과를 갖는다.”¹¹⁾ 창의성 증진¹²⁾에 효과적이며, 이야기 구성 능력 및 구조 개념의 발달¹³⁾에 도움을 주며 상호작용¹⁴⁾을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에 도움을 준다.¹⁵⁾ 자아정체성 확립의 지름길인 자서전 쓰기는 학생들이 가장 쉽게 도전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큰 글쓰기이다. 2016년 자유학기제¹⁶⁾ 전면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자서전 쓰기 원리를 제시하였고 김혜정(2009)은 자아탐색과 자서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지만 둘 다 실제 수업에 적용하여 검증하지 못했다. 윤미영(2013)은 자서전 쓰기 활동의 인성 교육적 효과를 수업 활동으로 입증하였다. 장유정(2013)은 자전적 글쓰기의 다섯 가지 경험의 서사화 원리를 제시하고 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 10) 김종성,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교육청의 책쓰기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41권 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 p.82. (책 만들기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여 A4 용지 30매 이상(또는 원고지 250매 이상)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 수업을 일컫는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Kuhlthau의 정보탐색과정이나 Eisenberg&Berkowitz의 Big 6 Skill 등의 모델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학교 도서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학생들의 주제적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 11) 김종성, 위의 논문, pp.84-89.

- 12) 변윤희,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의 효과 연구」, 『교육학연구』 제44호, 2006, pp.27-55.

- 13) 김정섭, 「또래협력이 아동의 추론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p.33-36.

- 14) 비고츠키는 쓰기 학습에 대한 정의를 ‘분절적 기술 습득이 아닌 의사소통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했다.(Dipardo & Freeman, 1988. 문혜경, 「협동학습을 통한 작문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21. 재인용)

- 15) 노영희·유수옥, 「스케폴딩 전략을 적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과정에 나타난 유아의 반응」, 『유아교육학논집』, 제14권 제5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0, pp.261-286.

- 16)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 수업이나 직장 체험활동과 같은 진로 교육을 받는 제도.

청소년 자서전 쓰기가 진로탐색의 첩경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방편으로 더욱 전면적인 시행을 제안하는 바이다.

II. 자서전의 개념과 이해

Philippe Lejeune은 『자서전의 규약』에서 자서전의 개념을 ‘한 실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하여 개인적인 삶, 특히 자신의 인성(人性)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산문으로 쓰인 과거 회상형의 이야기’¹⁷⁾로 정의했으며, 대다수 연구가 이를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서전 규약 2』¹⁸⁾에서 자신의 저서를 스스로 비판하고 보완한다.

시대에 따라 자서전의 작가층이 변하면서 개념도 변하고 있으며, 시간에 있어서나 다양한 서사표현 양식에 있어서나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미래 자서전은 시간이 갖는 허구성과 다양한 서사표현 방식의 허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바야흐로 모든 학문이 융합을 맞는 시대 현실에 맞춰 글쓰기도 타장르와의 교섭이 이루어진 지 이미 오래고 자서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는 단순히 창작자의 개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필요뿐 아니라 자아

17) Philippe Lejeune,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 지성사, 1998, p.17. (1. 언어적 형태 a) 이야기 b) 산문으로 되어 있을 것 2. 다루어진 주제 : 한 개인의 삶, 인성의 역사 3. 작가의 상황 : 저자(그 이름이 실제 인물을 지칭함)와 화자의 동일성 4. 화자의 상황 a) 화자와 주인공의 동일성 b) 이야기가 과거 회상형으로 씌었을 것)

18) Philippe Lejeune, 『Le pacte autobiographique(bis)』 in Moi aussi, Seuil, 1986, pp.13-35. 참고 (유호식, 『자기에 대한 글쓰기 연구 (2) : 자서전과 성실성』, 『불어불문학연구』 제86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11, pp.192-193. 재인용)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에도 이러한 객관적 거리두기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자서전은 더 이상 교조적 정의가 될 수 없으며 자전적 소설이 자서전의 영역에 거론되듯이 진실 문제 역시 허구를 포함한 진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자서전 역시 문학의 일부이므로 문학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자서전을 통해 저자는 자신의 관점으로 형상화한 자기 질서를 세우게 되고 타인에게도 그 질서를 제시한다. 그러므로 자서전은 작가의 의도된 환상이다.

청소년 자서전의 제재는 학생들의 경험이고 그러한 경험의 서사화가 이루어질 때 자서전이 되는 것이다. 임경순¹⁹⁾은 경험을 서사화하는 몇 가지 특성을 설명하였는데, 그렇다면 자서전의 특징은 어떠한가. “첫째, 자서전은 자신의 삶 즉 사실을 위주로 한 글이다. 그러므로 현실과 허구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저자의 참모습,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 둘째, 서술자와 서술 대상이 동일하여 자기 왜곡이 두드러질 수 있어 자기를 끊임없이 객관화하여야 한다. 셋째, 자서전은 대부분 과거 회상의 글쓰기이나 현재와 미래까지 이어지는 글쓰기이다. 왜냐하면 자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형성되어지기 때문이다.”²⁰⁾

이러한 자서전 속에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존재하는데 자아 회상의 원리, 선택의 원리, 자기 진실성의 원리, 경험 자아와 서술 자아의 거리두기의 원리,

19) 임경순, 『서사표현교육론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3, pp.44-53 참고. 경험의 서사화 특성을 생각해보면, 자기 경험 서사 창작의 과정은 경험을 사건으로서 서사적 관계 형성을 파악하게 하고 과거의 자아와 관계적인 대화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삶에서 나아가 사회·문화적 환경까지 두루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최인자, 「자아 정체성 구성활동으로서의 자전적 서사 쓰기」, 『창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 2001, p.351 축약.

자아성찰을 통한 의미발견의 원리, 관계성의 원리, 통일성의 원리이다.

앞서 파이너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관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서전적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했다. 이는 후향(regressive), 전향(progressive), 분석(analytical), 종합(synthetical)이라는 네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후향’은 회상, 회귀, 소급의 단계로 학습자가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회상하여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무의미하거나 기억하고 싶지 않던 기억들 까지도 끄집어내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전향’은 전진의 단계로 자유연상을 통해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때 과거의 경험들과 현재의 지적 관심이 연관되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하는 것을 기록하게 한다. 이때 과거를 통해 왜곡되거나 억압된 점은 없는지 돌아보며 그 원인을 살피는 것이다. ‘분석’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얻은 개인적 경험들을 개념화함으로써 과거-현재-미래가 어떻게 얹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종합’ 단계는 자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의 지적 관심,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새로운 안목을 얻는 단계이다.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이 과정은 바로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 자서전쓰기가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Ⅲ. 자서전 쓰기 수업 모델과 지도 방향

1. 자서전 쓰기 수업 모델

청소년기는 흔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그러한 혼들림 속에서 참자

아를 찾아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자서전 쓰기 교육을 설계하기에 앞서 이 시기 청소년의 발달단계 특성²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는 인지발달단계 중 가장 높은 차원의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되므로 아동과는 달리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상대적이고 다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며 가설적이고 연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성적에너지가 많이 증가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성적 환상으로 애정에 대한 열망이 강해진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반항적인 기질을 강하게 표출한다. 청소년은 주변인이라고 불리며 성인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정서적,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겪고 방황하면서도 자기의 독자성과 개인적 정체감을 발전시켜 나간다. 이때 청소년기의 불안정과 혼란에 대한 성인들의 관용적인 인내와 양육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적성이나 진로 찾기를 위해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기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한 수업안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중학교 동아리 책만들기 특강을 진행²²⁾하면서 수행한 자서전 쓰기 수업을 토대로 수업 모델과 지도 방향을 검토하고, 학생들이 제출한 텍스트의 특징과 후기 분석을 통해 자서전 쓰기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필자가 진행한 자서전 쓰기 수업의 경우 6회차에 걸친 특강이었고 원고 분량은 개인별 편차가 크며, 7명의 학생들이 총 293쪽 분량의 책을 만들었다. 퇴고의 경우 조원들끼리의 동료참사를 기본으로 하였다.

21) 한윤옥, 『청소년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7, pp.36-37.

22) 2013년도 D광역시 소재 K중학교 책쓰기 동아리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자서전 쓰기 모델로 수업한 결과물은 『우리들의 발자국』으로 출간 되었으며 이를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본 차시별 글쓰기 진행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으로 개별적 서사 표현 방식에 따르거나 별도의 개인 글쓰기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각 차시 간 교섭이나 순서의 전후 관계는 필연적일 수 없다. 집단 안의 팀원일 지라도 반드시 이러한 순서대로 써나가기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원이 적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서사 표현 방식에 따라 또는 시간의 구성에 따라 언제든지 그 비중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으며 순서도 바뀔 수 있다. 또한 각 차시의 결과물은 팀원들끼리 공유하여 첨삭이 이루어질 경우 각 차시별로 첨삭이 가능하다.

〈표1〉 글쓰기 지도 수업(목표와 방법)

과정	차시	글쓰기 지도 내용		글쓰기 지도 목표	글쓰기 방법
글쓰기 전 (PREWRITING)	1	인생그래프, 인생 연보, 꿈 목록 작성, 지배가치 찾기, 내 스토리 찾기		숨어있는 기억 되살리기, 구체적 미래 설계	읽기, 토의, 발표,
	2	창작계획서 작성(인물, 사건, 배경)		글의 뼈대 세우기	화제, 주제, 형식, 시간 정하기
글쓰기 중 (후향, 전향, 분석, 종합)	3~5	창작 계획서에 따른 자서전 창작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 대한 회상과 상상	- 행복한 순간에 대한 기억으로 긍정 강화 - 지우고 싶은 과거와의 화해 - 현실 직시 - 미래 설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료 수집, 정해진 방법에 따른 글쓰기, 편집, 과거·현재에 대한 자기 해석과 미래 설계
글쓰기 후	6	프로로그, 에필로그 작성, 목차 구성, 제목 정하기, 텍스트 완결		퇴고, 텍스트 완결, 책 만들기	퇴고, 텍스트 완결, 책 만들기

1차시는 자신에 대한 집중적 탐구의 시간이다. “PREWRITING”의 단계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경험과 관심사에 접근한다. 이 과정에는 자신의 삶을 상승과 하강의 그래프로 그려보는 ‘인생 그래프’와 연보로 작성하는 활동,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지배가치를 찾는 활동, 자신의 버킷리

스트를 찾는 ‘꿈목록 작성’ 등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설계하게 한다. 적극적인 회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이다. 자신의 기억 저편에 감춰져 있던 과거 사건들을 하나하나 재생해 내고, 그것을 토대로 현재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이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이다.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고려되며 내가 쓸 자서전의 거대한 밑그림이 될 거리들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 가지 경험과 계획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다.

이때 글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회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도자가 쉽게 연상할 수 있도록 소재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던져주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음식, 옷, 날씨, 계절, 취미, 가족, 친구, 선택 등과 관련된 기억 찾기 등으로 구체화시켜 주면 생각지 않았던 과거들이 연결되기 쉽다. 자신이 살았던 동네나 여행간 장소에 대한 기억 등을 그림으로 그리게 한 후 그것을 친구들에게 스토리텔링하게 하고 글쓰기를 시키면 자연스럽게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한다. 또는 사랑, 미움, 분노, 우정, 희망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과 관련되는 단어들을 던져주고 떠오르는 일들을 끄집어내게 해도 효과적이다. 이때 창의적인 연상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생성과정에 특히 효과적인 빙고-스토리텔링 방식의 창작²³⁾법을 이용해도 좋다. 자신의 삶을 객관화시켜 잘 드러낼 수 있는 서사표현 방식과 그에 맞는 효과적인 내용들을 고민하고 찾아간다.

2차시는 앞서 수집한 많은 자료를 토대로 자서전의 뼈대를 세워가는 과정이다. 1차시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자신에 대해 ‘후향, 전향, 분석, 종합’의 과정을 거친다. 이로 얻은 결론에 따라 화제, 주제, 형식, 시간 등을 정하고 그에 맞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을 배치하여 창작 계획서를

23) 최선녀, 「빙고-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동시 창작 지도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작성하는 시간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자서전을 써가는 순서가 하나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듯이 이 때 사고의 순서 또한 한 방향으로만 향하지 않는다.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든지 교섭이 일어날 수 있으며, 화제, 주제, 형식, 시간 중에서 무엇이 먼저 정해지느냐에 따라 교섭되는 대상 또한 달라진다. 극단적인 경우 과거 또는 미래만 나타나도록 자서전을 쓰는 경우에는 각각 경험이나 상상의 영역만으로 구성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미래 상황만을 설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는 과거나 현재와의 교섭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시, 소설, 수필, 시나리오와 같이 표현방식을 다양화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소재나 테마를 중심으로 다르게 구성할 수도 있다. 앞서 소개한 음식, 옷, 날씨, 친구, 취미 등을 중심으로 자기의 삶속에서 연관 있는 사건들을 모으고 의미 찾기를 할 수도 있다.

3, 4, 5차시는 2차시에서 계획한 창작계획서에 따라 직접 글쓰기를 하는 단계이다. 비록 2차시에서 ‘후향, 전향, 분석, 종합’의 과정을 거쳐 창작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계속 경험과 허구의 교섭이 일어나며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 시간의 순서 역시 순차적이지만 한 것이 아니므로, ‘후향, 전향, 분석, 종합’의 과정 역시 순차적으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필요에 따라 전향 후 후향, 분석 후 후향, 종합 후 전향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회귀적인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이때 회상, 회귀, 소급을 통해 선택된 소재들로 적극적인 글쓰기를 하는 단계이기도 하다. 자신의 삶에서 소재를 선택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해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나 지우고 싶은 기억이라는 소재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 이는 가장 행복한 순간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게 하여 현재의 힘든 시간에도 그 기억과 감각을 되살리게 하려는 의도와 나는 어떠한 것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가장 지우

고 싶은 기억의 경우도 단순히 그 순간을 떠올리는 방법 뿐 아니라 그 시절의 사건, 사람을 객관적인 거리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그리고 과거의 시간을 참고로 하여 현재의 나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자기와의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토대로 자신의 삶 속에서 유의미한 사건들을 취사선택하여 초점화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구성하면서 팀원 간의 소통을 통해 독자의 반응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후향’을 토대로 한 ‘전향’과 ‘분석’ 과정이다. 앞서 창작계획서 작성 시 이 분석의 과정을 통해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뼈대를 세웠고, 창작을 하면서 그 적합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분석의 과정을 거친 자료들을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자신의 과거-현재-미래가 하나로 엮여지게 해야 한다. 여기서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행복의 정의나 지배가치를 확인하고 창작을 통해 의도대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혼자만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나의 모습 또한 고려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6차시에는 텍스트를 완결하고 수정 편집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프롤로그나 에필로그, 목차, 제목 등 책의 모양새를 갖추는데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 한다.

자서전 쓰기에 있어 사고하기의 과정은 대부분 경험과 상상이 겹쳐지는 공통분모의 지점에서 일어나며 그것은 화제, 주제, 형식, 시간 등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필요한 경험이나 상상과의 교섭이 일어나며 이것은 결코 순차적인 현상일 수가 없다. 또한 이러한 사고하기는 글쓰기 단계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며 사고와 창작, 수정 작업이 순차적이지 아니라 항상 회귀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과정 또한 편의상의

구분일 뿐 반드시 선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쓰고자하는 자서전의 중심점이 미래에 놓여있는 경우는 그것을 중심으로 필요한 과거나 현재를 선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글쓰기를 하던 도중에도 다시 과거나 다른 시간들로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다. 시간의 경우도 셋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 자서전을 구성할 수도 있다. 후향-전향-분석-종합의 과정 역시 순차적인 구조가 아니라 언제든지 과정마다 회귀적인 구조를 이룰 수 있다.

본 글쓰기의 경우 정해진 강좌 6차시의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시간적 제약이 컸으나 다른 강좌에서 활용할 경우 각 차시를 더 늘여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글쓰기 교육을 하면 더욱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이때 자서전을 비롯한 필수 도서의 독서와 토론을 통해 ‘어떤 삶이 바른 삶이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의 화두를 던지고 답을 찾아가도록 진행하면 더욱 좋다. 자서전이나 다른 명저를 통해 타자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활동을 통해 자기 확인과 자기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는 자칫 표현의 다양성으로 인해 자서전 쓰기에 있어 학생들이 ‘자기 대면’보다 ‘유희성’에 초점을 둘 수도 있는 점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2. 자서전 쓰기 지도의 방향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자립을 이루어가는 시기로 자아정체성을 확립시켜간다. 독립된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사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자립과 정서적인 자립이 필요하다.²⁴⁾ 옥현진²⁵⁾은

24) 나은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서전과 자기소개서 쓰기 연계 교육 방안』, 『화법연구』 14권, 한국화법학회, 2009, pp.117-118.

문식성과 관련해서 정체성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사회구조와 개인의 주도성 간의 끊임없는 긴장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타자와의 접촉과 선택의 상황을 통해 더 분명하게 인식 되고, 모든 사회적 의미 구성 행위에 관여하며, 다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복잡하고 급박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문식 활동은 정체성을 표현하고 재구성하는 핵심적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자기 이해를 도모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글쓰기는 매우 유용한 활동이 되며, 자서전 쓰기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창작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보다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확립에 더욱 큰 몫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서는 이에 앞서 교수자가 유의할 사항이 있다.

먼저 적극적인 회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1차시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좋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그 출발점이 되는 회상은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 단순히 사건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에 얽힌 사람들의 관계를 읽고 해석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나를 객관적으로 조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수자 역시 꿈목록이나 지배가치 찾기처럼 1차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서 구체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래 설계에 있어 막연한 미래가 아닌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미래를 설정하도록 회상도 구체화시켜야 한다.

두 번째로 자서전은 타자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며 이는 독자를 고려한 글쓰기여야 함을 전제한다. 그러나 자신은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을 소재로 하면 오히려 안다는 점 때문에 구체적인 기술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자신

25) 옥현진, 『정체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회, 2009, pp.363-367 참고 축약.

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또한 독자를 생각하고 기술하여야 효과적인 전달을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글을 쓰기 전에 창작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채워서 시작하면 글의 방향을 잡고 시작할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으나 학생들의 경우 오히려 파편화된 사건들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에도 글쓰기를 먼저 시작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도 계획서의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생각하고 채워가면서 글을 쓰는 것이 좋다. 즉 전체 글의 주제나 구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각 화제가 될 사건들을 연결시켜야 자신이 쓰고자 하는 방향으로 통일성 있게 전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서전 쓰기 역시 글쓰기의 한 종류이므로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오류를 반복하므로 수업에 앞서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 예로는 동일 단어나 저속어의 중복적인 사용,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 사용, 여러 가지 종결어의 혼용, 구어나 은어의 사용, 비문법적인 언어 사용, ‘나’의 빈번한 사용 등이다. 또한 자서전은 그 형식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자칫 천편일률적인 연대기적 기술형식을 갖기가 쉬운 장르이므로 다양한 서사표현 양식의 접근을 통해 창의적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IV. 자서전 작품과 후기 사례 분석

1. 자서전 작품 분석

학생들의 작품을 시간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보면 대부분이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탄생에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순차적 구성

이 일곱 작품 중에 여섯 작품이다. 나머지 하나는 2027년 추석이 그 시작점으로 미래만을 배경으로 한 미래 자서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학생은 미래로, B학생은 현재로 시작하여 미래를 중심으로, E학생은 과거와 현재를 중심으로, C, D, F, G 학생은 과거에서 미래까지로 시간을 설정하였다. 이 중 C학생은 구체적인 미래 설계로 이어지고, G학생은 사건의 나열이 중심이 되는 서술을 하였다. 또 다른 한 작품도 순차적 구성이기는 하나 그 시작점이 현재이며, 이를 중심으로 미래가 구성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래보다는 과거에 비중을 두고 창작하는 이유는 자서전이라는 장르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현재와 미래가 합쳐진 B학생 자신도 이 작품을 자서전과 소설을 합친 형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미래가 중심이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허구의 비중이 커진 결과로 보인다.

1899년 2월 23일 대구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 사람들의 머리에 기억된다.

그의 이름은 ‘***’

태어나 5년 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다. 하지만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 죽고 말았다. 옛날 어느 극소수의 집단들은 불의의 사고로 죽은 사람은 태어난 날로부터 100년 후 같은 집안, 같은 이름으로 태어난다는 전설을 믿었다. 바로 그가 그 집단의 후예였다. 이것이 사실인지 신은 그가 죽었을 때 그를 데려가 기억을 지우고 영혼을 다시 혼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바꾸었다.

95년 후 1999년 2월 23일 한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의 손에는 ‘***’라고 글자가 쓰여 있었지만 3일 만에 없어졌다. 부모는 이를 기이하게 여겼으나 전설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이의 이름을 ‘***’라 지었다. 그는 100년 전 같은 이름의 ‘***’의 3대손에 가깝다.

아이가 태어나던 순간, 하늘이 열리고 여의주를 문 용 두 마리가 하늘로 승천하며 천둥, 번개가 일고 엄청난 굉음이 울렸다.

글의 표현 형식 면에서 보면 C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고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라는 서술자의 선택과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후반부의 미래는 미래가 중심인 A, B와 함께 자전적 소설에 가깝다. 위의 작품은 C학생의 것으로 프롤로그에서 그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데 영웅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기이한 탄생으로 허구적 상상을 곁들이고 있다. D는 과거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형식을 채택하였는데, 현재 속에 담긴 많은 부분이 미래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로 채워져 있어 미래의 삶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보인다. E는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경험을 중심으로 시를 적었고, F는 C작품처럼 사랑에 대한 경험과 허구적 설정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G는 사건의 나열이 심하며 요절로 미래를 끝맺고 있다.

서술자를 살펴보면 ‘그’가 서술자로 설정되어 있는 C작품을 제외하면 모두 ‘나’를 서술자로 삼고 있다. 처음에 ‘그’를 서술자로 선택했던 학생들도 원고를 써가면서 ‘나’와 ‘그’를 구분하여 중심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나’로 바꾸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래도 아직은 시점을 바꾸어 창작하는 일엔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고, 자서전이라는 장르의 특성상 ‘나’로의 접근이 용이한 점이 작용한 것이다.

나는 일어나 등수를 다시 확인했다. 반11등 전교 40등. 그렇다. 반 등수는 그대로지만 전교 석차가 올라있었다

“오! 예쓰!”

기뻐다. 역시 노력의 결과는 헛되지 않는 법이구나 생각하며 편안하게 겨울방학을 보냈다.

어느새 중3. 고등학교를 정하고 나는 시험기간에만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되어 전교 30등으로 졸업했다.

학생들의 자서전에 종종 나타나는 것이 대개 학업 성적과 관련된 좌절

과 노력이다. ‘나’가 생각하는 진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학업 성적과 관련된 경험을 서사의 기본 축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높은 내신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게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다. 이러한 서사에 등장하는 ‘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탐색하는 내면적 반성보다 무엇이 되고 싶거나 되어야겠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외재적 조건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들에게 경험은 주로 목적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며 오직 성적을 올리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면 그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경우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어 자아상실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성적은 아주 민감할 수 있는데 어떤 경험의 결과보다는 그 경험의 과정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화상을 그리듯이 쓴 글 이런 글을 소설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순전히 기억력에만 의지해서 써 보았다. <...> 이번에는 있는 재료만 가지고 거기 맞춰 집을 짓듯이 기억을 꾸미거나 다듬는 것을 최대한으로 억제한 글짓기를 해 보았다. 그러나 소설이라는 집의 규모와 균형을 위해선 기억의 더미로부터의 취사선택은 불가피했고, 지워진 기억과 기억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서는 상상력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작가의 말』 중에서

박완서의 자서전적 소설의 초입에서 보이듯이 “자서전적 소설은 자서전 쓰기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용인성을 내포”하고 있다.²⁶⁾ 작가의 이야기

26) 박영혜·이봉지, 『여성 자서전 이론의 현 단계와 특수성에 관한 연구』, 『비평과이론』 제 6집 2권, 한국비평이론학회, 2001, pp.10-11. “작가가 자서전을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서전적 경험에 약간의 소설적 상상을 개입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작가의 명

는 상당 부분 허구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솔직한 태도로 인해 오히려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기도 한다. “자서전적 소설 쓰기가 지닌 이러한 장치를 잘 활용하면 자서전적 쓰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덜고, 허구적 재구성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²⁷⁾

4살쯤 될 때 어린이집이 아닌 선교원에 들어갔다. 선교원에 가보니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와 만나게 되었다. 집근처에 살다보니 어머니끼리도 친했고 집에도 많이 놀러 와서 같이 놀았다. 선교원을 다니면서 6살이 되던 해 내 생일이 빨라서 선교원에서 생일축하를 받았다. 생일날에는 한복을 입고 생일 케이크 앞에 서있었다.

선생님은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했다. 그 때 나와 친하게 지내던 여자를 불러서 나오라고 했다. 그러더니 여자애가 나에게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 촛불을 불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은 선생님이 사진으로 찍어 나한테 주었다. 정말 부끄러운 것처럼 사진을 숨기고 속으로는 좋아했다.

자서전에 있어 기억의 문제는 많은 학생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이다. 어디까지가 기억인지 허구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선을 그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위 F작품에서 4살쯤 될 때라는 말은 네 살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여섯 살이어도 기억은 선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진이라는 증거가 남아있어서 그 시간 이후에도 몇 번 사진을 보며 기억을 떠올리거나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기억에 선명히 남을 만큼 그 사건이 인상 깊게 남아있었을 수도

시적인 규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실 기억과 상상의 문제는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애매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사실에 대한 기억조차 그것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왜곡이 일어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27) 이은미, 『대학 교양 글쓰기에서 자서전적 쓰기의 활용』,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p.231.

있다. 어찌 되었든 이 학생의 편집후기에는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대해 쓰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것은 자서전이 순전히 기억에만 의존해서 진실하게 적어야 한다는 강박이 작용한 결과이다.

자서전은 자기 서사이면서 하나의 주제를 붙잡고 써가지 않으면 단순 사실의 기록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 이 학생의 경우도 어릴 적부터 현재까지에 대한 서술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그때그때 사건에 대한 단상은 있으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사건들을 선택하게 되었는지가 선명히 잡히지 않는, 시간의 순서에 따른 사건의 나열로 보이는 일화들이 많다. 진실성, 사실의 전달에 대한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처럼 또 다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학생은 자기 경험을 대상화하여 바라보기 때문에 삶의 분절된 경험들은 관계를 갖지 못하고 단순히 나열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또는 무조건적인 반성으로 연결될 뿐 기대를 통해 미래의 구체적인 삶의 이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물론 초고의 경우는 통일성과는 무관한 사건의 나열이 더욱 심하였다. 이렇게 자서전을 진행할 경우 각각의 경험들이 하나의 주제를 향해 통일성을 얻지 못하고 사건의 기록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1차시 수업과 2차시 수업에서 창작 계획서를 쓰는 과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① 내 개념에 선물이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 B가 만족해할 만한 것을 주는 것, 하지만 난 이 개념을 이론상으로만 생각한지 5년 정도 되었다.

그럼 이론이 아닌 진짜 개념은? 바로 A가 B에게 주기 전에 A부터 챙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물이다. 나도 못 챙기는데 다른 사람을 챙긴다고 해서 잘 챙겨질 리 없다.

그런 의미로

****아! 추석 선물 잘 받아라!**

② “어머니, 배고파요.”

“아버지는 언제 와요?”

“내일은 또 어떻게 배를 채우나.”

들으면서 생각나는 건 참 많았지만 나도 어릴 때 저렇게 융통성 없이 부모님에게 되는데로 다 해달라는 철없는 소리를 했을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도 대충 이해가 갔다.

③ 다시 생각해보면 확실히 아버지의 말에 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 같았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를 꼼꼼히 챙겨주셨다. 어머니하고만 방긋 웃으며 대화할 때도, 형하고 단 둘이 놀러가서 방긋 웃을 때도, 가족 끼리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맥을 끊거나, 아버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도, 다 커서 모든 가족을 귀찮게 생각할 때도.

④ 돈, 명예, 권력, 가족, 겉으로 드러난 옷차림새, 주관적인 생각.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바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이다. 삶은 내가 주인공이다. 하지만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곳이기 때문에 다른 이와 함께 가려한다. 끊지 마라. 끊임없이 소통하라. 상대방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려 하지마라. 삶은 때로 너의 생각보다 간단하고 주어진 그 자체에 답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①~④의 경우 과거의 경험이 사건의 중심 배경이 되고 있지는 않으나 위 작품의 경우 삶에 대한 성찰의 깊이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비록 자신을 타자화한 그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가 생각하고 행하는 일은 과거나 현재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다. 타인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으며, 모든 일의 출발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소통을 특히 중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중간중간 소통의 문제를 꼬집어내어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미래의 내가 겪게 될 지도 모르는 소통의 부재를 창작의 힘을 빌어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다.

⑤ 몇 년 후 5학년이 되던 해 여러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다. 또 그해 1월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이 침울해졌다. 1월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2월 생일 그는 침울해진 집안 분위기에서 생일파티를 하지 않았다. 그는 즐거운 생일파티를 하고 싶어 집에서 하지 않고 밖에서 하려 했다. 그의 부모는 생일파티마저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나가서 노는 척 하면서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였다 이것이 태어나서 첫 번째 반항이었다고 한다. 그 일이 태어나서 가장 후회 되는 일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후 반항이나 방황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기록은 전한다.

⑥ 부모님이 모두 일을 나가시고 유치원을 다녀오면 너는 항상 혼자였으니까 심심하고 많이 외로웠을 것 같은데, 지금의 나의 기억엔 그때가 외롭고 혼자여서 쓸쓸하다는 기억보다는 혼자여서 즐거웠다는 기억들로 가득한 것 같아. 혼자지만 잘 놀고 외로움을 잘 견뎌낸 아이 시절의 나는 참 대견했던 것 같아.

①~④는 자전적 소설 형식의 서사 표현 양식을 선택하고 ⑤는 ‘그’라는 등장인물을 바라보는 서술자를 등장시켜 현실의 자신에게서 거리두기를 성공하고 있으며, 경험을 통해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아 성찰을 통한 의미 발견의 원리이다. 서술자아가 자신의 삶 속에서 후회, 개심, 통찰을 통한 변화를 겪은 연후에 자신의 경험을 서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서술자아가 그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려는 충동과 관련된다. ⑥의 경우는 오히려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다. 이러한 성찰과 발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자아탐색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① 그는 고등학생이 되어 사랑을 시작하게 된다. 그가 사대부고에 가는 것이 확정된 날 보게 된 그녀와의 만남은 길거리였다. 지나가다가 갑자기 후광

이 비치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고 한다. 소심했던 그는 뻣뻣한 자세로 그녀를 통과해 갔고 그 이후로도 친구들에게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② 그는 2025년 대학 동기인 친구의 동생을 소개받았다. 나이는 2살 차이의 어여쁘고 사랑스럽고 귀여운 여동생이었다. 이런 귀여운 얼굴을 보자마자 그때의 첫 사랑처럼 첫눈에 반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다시 경험했다.

중학생의 경우 자서전의 상당 부분이 이성에 대한 이야기가 차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앞서 살펴본 청소년기의 특성에 기인한다. 그러나 C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여자 친구와 사랑에 빠지는데 그것은 바로 첫눈에 반하는 것이다. 예쁘고 사랑스럽고 첫눈에 반하는 소설 같은 것이 바로 그들이 꿈꾸는 사랑의 모습이다. 이는 방송 매체를 통해 은연 중에 길들여졌거나 시기적인 특성으로 어찌면 당연한 현상이나 좀 더 구체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성품을 갖추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① 너는 문화상품권을 가져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해결하려 노력해주는 선생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②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꼭 네가 나서주길 바랄게. 네가 없으면 되지 않을 일들, 즉 너만이 할 수 있고 너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을 거야. 그런 일들이 너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온다면 주저 말고 그것을 꼭 잡아 네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마지막으로, 네 삶의 목적이 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위 학생은 자신이 상품으로 받은 문화상품권이 없어진 ①의 사건을 통해 자신과 공감해주었던 선생님을 표본으로 하여 ②라는 결론을 얻고 있다.

이 글은 서사에 있어 편지글 형식을 취하였는데 표면상으론 미래로 보내는 편지는 없다. 그러나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자신이 되고 싶은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진로를 밝히는 미래의 모습은 아니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있다. 즉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학생들이 경험의 서사화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자신의 글에 적용하여 깊이 있는 성찰을 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① 회사에 출근할 때 중학교 때 만들어진 지상철 3호선을 타고 다닌다. 오늘 문득 든 생각인데 내가 태어났을 때 일어난 지하철 사고가 있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불만을 품고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해 약 200여명의 사람이 죽은 그런 사고였다. 잠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잠이 들었다. 회사에 가는 도중 점점 소음이 들리면서 무슨 소리가 하며 일어났다. 일어나고 나니 철로 쪽에서 소음 소리가 나고 있었다. 나는 그냥 무시하고 휴대폰이나 만졌다. 휴대폰을 만지던 도중 갑자기 열차가 공중으로 떠오르고 떨어지면서 땅에 떨어졌다. 불과 지상철 3호선이 만들어진 지 10년도 채 안 되어 일어난 사고다. 이 사고로 인해 열차를 타던 승객은 전부 사망했고 지상철 밑에 지나가던 차도 몇 대 부숴 졌다. 나는 이 사고로 막 군대를 제대한 나이에 죽게 된 것이다.

② 50살이 되었을 때엔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 아이들은 어찌나 멋지게 보이던지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었던 아내와 지금은 멀리 떠나가 버린 자식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편지를 쓰고 우체통에 집어넣었다.

그가 결국 50년 가까이 몸 바친 학교를 떠나고, 모든 선생님들의 배움을 받으며 눈물겨운 퇴임식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에 장난인가 어찌 한낱 인간이 운명을 거스를 수 있을까. 한 차가 그에게 달려오니 치이고 말았다. 그 이후 49일간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학생들의 글을 보면 가끔씩 시간에 쫓겨 급하게 결말을 마무리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등장인물을 죽이는 것이다. 이야기를 진행해 가다가 힘들거나 시간이 없으면 죽음으로 끝을 맺어 버릴 수 있어 이야기의 통일성을 해친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창작계획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부분의 합으로서의 전체와 전체의 구성 요소로서의 부분의 역할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며 첫 차시만이 아니라 마무리 지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①의 경우는 자신의 존재론적 관점이 거시적으로 보면 역사적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지금 이 글을 쓴 학생이 다닌 학교 앞에는 지상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것이 미래 자신의 죽음과 맞닿아 있다. 자신이 태어난 해에 지하철 사고가 났고, 현재 지상철이 건설 중인 것과 관련하여 그 학생의 미래는 지하철 사고로 죽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글쓰는 행위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자신을 이해하는 응답의 과정으로서, 그 과정에서 서사화되는 주체들은 역사적 사건과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자서전 초고와 완성본 비교 분석

자서전을 처음 썼을 때의 초고와 완성본을 비교해 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문장의 차이는 물론이고 사건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서도 분명 차이가 있다.

일단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동일 단어나 저속어의 중복적인 사용,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말 사용, 여러 가지 종결어의

혼용, 구어나 은어의 사용, 비문법적인 사용, ‘나’의 빈번한 사용 등이다. 이러한 오류의 수정은 물론이고 글쓰기 교육의 효과로 나타나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서의 오류 역시 현격히 줄어든다. 또한 글쓰기에 처음 참여하는 경우에는 문단 나누기의 개념이 잡혀있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완성본에서는 많이 잡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두드러지는 경우는 처음 글쓰기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 자서전이라고 하면 자신이 회상하는 모든 기억 또는 시간순으로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정리 정도로 생각하고 글을 쓰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많은 분량의 글을 쓰지만 통일성을 생각하지 않은 채 유의미하지 않은 사건까지 모두 끌어쓰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① 제가 4살쯤이 될 때 저는 어린이집이 아닌 선교원에 들어갔습니다 선교원에 들어가서 저는 현재까지 잘알고지내는 친구와 사귀게되어 선교원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또래의 친구들과 지내며 선교원 생활을 6살까지 하게되어 선교원친구들은 사진으로만 볼수있게됩니다

② 4살쯤 될 때 어린이집이 아닌 선교원에 들어갔다. 선교원에 가보니 집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와 만나게 되었다. 집근처에 살다보니 어머니끼리도 친했고 집에도 많이 놀러 와서 같이 놀았다. 선교원을 다니면서 6살이 되던 해 내 생일이 빨라서 선교원에서 생일축하를 받았다. 생일날에는 한복을 입고 생일 케이크 앞에 서있었다. 선생님은 좋아하는 사람을 고르라고 했다. 그 때 나와 친하게 지내던 여자애를 불러서 나오라고 했다. 그러더니 여자애가 나에게 불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생일 케이크 촛불을 불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은 선생님이 사진으로 찍어 나한테 주었다. 정말 부끄러운 것처럼 사진을 숨기고 속으로는 좋아했다.

①은 초고이고, ②는 완성본으로 앞에서는 사진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과거의 어느 특별한 순간을 적극적으로 회상하여 하나의 의미있는 장면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과거의 술한 사건들은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자서전 쓰기는 그런 사건들이 공통성을 갖고 하나로 뭉쳐질 수 있도록 분석하고 종합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사건이 자신의 총체적 삶에서 어떤 의미망을 형성하는지 해석하는 것이다.

① 우리는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원현이와 호가 컴퓨터부로 친했지 그전까
지 제대로 된 대화는 없었다. 그때 한 대화가 지금도 생각이나고 그 오빠 한마
디가 기억이 난다.

② 우리는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원현이와 정호가 컴퓨터부로 친했지 그전
까지 제대로 된 대화는 전혀 없었다. 지금도 생각하면 ‘오빠’ 하며 불러주던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들리는 듯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위의 경우는 미세하긴 하지만 과거의 기억을 더욱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생생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을 현재시점까지 연결하여 의
미를 부여하고 있다.

① 부모님은 어려움속에서 너가 첫째로 태어나서 기대가 참 크셨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도 많은 사랑을 받았었지. <중략>

지금의‘나’는 갓난 아기의 너가 존재 했었기 때문이고, 많은어려움속에서도
특히 아기일때의 너가 잘 견뎌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한 내가 있었던 것
같아.

② 부모님께서는 조금은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힘들게 네가 첫째로 태어나
서 정말 소중히 생각 하셨을 것 같고, 기대도 정말 크셨을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귀하게 자랐었어.
<중략>

태어나고 몸이 살짝 노란 병인 황달에 걸렸었다고 하는데 큰 병은 아니었

지만 부모님께서는 귀한 내가 아팠기 때문에 정말 걱정을 크게 하셨다고 해.

지금의 ‘나’는 갓난아기의 내가 분명 존재했었기 때문이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특히 아기일 때의 내가 잘 견뎌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건강한 내가 있었던 것 같아.

다음의 경우 초기에는 그냥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건 기대가 컸고 사랑 받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완성본에는 그러한 생각의 원인을 제공한 황달이라는 사건을 기억해내고 인과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 더욱 탄탄한 개연성으로 연결하고 있다.

이처럼 작품의 전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창작의 기본적인 효과는 물론이고 사건을 구성하고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사건들과 인물의 관계나 감정의 흐름이 현재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자서전 후기 분석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가 적어서 다양한 편집후기를 얻기는 어려우나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학생도 있고, 아주 짧은 문장 속에 압축한 학생도 있다.

①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나를 위해, 내 미래 인생을 설계해보자는 생각에 이 글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미래 모습을 부정적으로 만들었고 과거로 갔다가 이를 뒤우치며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다. 아마 여기에는 글을 쓰며 생각한 내 자신, 미래의 모습을 생각해 미래에는 돈과 같은 물질적인 면에 쫓기지 않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내 물음이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그 물음의 답은 내가 지금 쓴 글의 주제이자,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② 이때까지 이어졌던/ 창작의 고통을 뛰어넘고/ 내 일생일대를/ 한 권의 책으로 탄생시키는/기적이 일어났다.

③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나의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해보는 것보다 이렇게 쓰면서 생각해보는 게 훨씬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 책을 쓰면서 나란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하고 글을 써내려 가다보니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나의 미래는 이럴 것이다 또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생각하며 글을 쓰니 재밌기도 하여 힘들지만 끝까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동아리 활동을 하여서 부족한 부분도 더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④ 처음 나에게 무엇인가를 써 내려가고 이야기를 생각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고난의 연속이었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중간 중간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내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나의 책 쓰기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에 보답하기 위해서 작품을 꼭 내기로 생각했었다. 무심코 지나쳤던 나의 이야기들, 나의 삶 속에 숨어있던 여러 추억들이 자서전을 쓰면서 삶을 되돌아보며 그렇게 다시 생각나고 그 때 여러 소소한 행복들을 느낄 수 있었다. <중략>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사람들, 나는 그들에게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분명 그들의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자서전은 삶의 행복을 찾는 길이다.

⑤ 그래도 일단 써보자! 드디어 완성했다. 아직 그래도 실력과 노력이 부족하지만 작년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내가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악착같이 붙어서 한마디씩 해주시던 *** 선생님!

⑥ 다른 친구들은 시원섭섭하다고 하던데 저는 그냥 시원하다는 느낌이 먼저인데 말이죠. 이야기는 15세 그러니까 중2까지가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제 미래를 생각해서 적은 이야기입니다. 글을 읽으시며 조금이나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⑦ 1년간 작품 써오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하면 어릴 적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기억이 어렴풋이 나면서 문제없이 작품을 썼습니다. 문제없이 쓰다 보니까 이제 끝이 되었네요.

학생들의 편집후기를 살펴보면 ①과 ③은 자서전 쓰기가 자신의 미래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반응이다. ⑥에선 친구들은 시원섭섭하다고 하고 자신은 시원함을 느낀다고 하며 독자에게 행복해지기를 권한다. 독자를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는 온갖 어려움을 딛고 완성하였으며 실력이 향상되었음을 느끼고 있다. ②는 책을 완성했다는 자부심이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④에선 나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어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음을 나타낸다. ⑦에선 기억이 나지 않아 힘들었으나 생각나기 시작하니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분명 책을 만드는 작업은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는 힘은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스스로 기량이 향상되었다고 느끼고 자부심을 갖는 경험은 앞으로 창작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지속적인 창작 동기를 불러올 수 있다.

작년에 책 만들기를 경험해 본 학생들은 올해는 원고 분량에 아주 욕심을 부려 말리느라 애를 먹었다. 그 중 책쓰기 동아리 활동 경험이 있는 두 학생이 145쪽 정도의 원고를 썼으며, 각각 한 권의 책을 쓰는데 도전하고 싶어 했으나 학교의 사정상 1권의 책만 지원하고 있어 원고 분량을 줄여서 출간하였다. 확실히 한 번 책을 만들어 본 학생들은 창작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표현력이 늘었고 다음 해에 훨씬 빠른 속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원고를 써나갔다.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다는 반응이 두드러졌다. 또한 어렵다고 생각한 책을 완성했다는 자부심이 다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연결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3학년이 된 학생들은 모두 다시 책 만들기에 참여하였고, 졸업한 학생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책 만들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방송부를 지원할

때 자서전을 쓴 경험을 제출한 후 특별대우를 받았으며 글쓰기로 인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하다고 전했다.

V. 결론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절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지만 그들의 고민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육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찾아온 호르몬에 의한 정서적 불안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합해지면 더욱 심화된다. 이러한 불안감을 물리치고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얻고 타인과 소통하는 통로를 여는 열쇠로 자서전 쓰기를 권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서전 쓰기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파이너가 제시한 후향, 전향, 분석, 종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현재를 진단하며 미래를 설계하게 한다. 경험을 통한 성찰은 자신과의 대화이자 타인과의 대화이다. 밀쳐둔 과거 경험과의 대화이자 다가올 미래와의 대화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이 미래자서전 속에 담겨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서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청소년에게 있어 미래 자서전 쓰기교육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수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 수업 모델은 집단으로 행해지는 글쓰기 교육에 적합하도록 임의적인 순서를 설정해 두었으나 이는 결코 다른 경우의 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작 원고가 책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서사 표현 방식의 다양화를 유도하며 경험을 통한 자신과의 소통,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그렇게 얻은 작품과 후기를 분석한 결과는 이리하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서전 속에는 자서전의 원리이기도 한 자아회상의 원리, 선택의 원리, 자기 진실성의 원리, 경험자아와 서술자아의 거리두기의 원리, 자아성찰을 통한 의미발견의 원리, 관계성의 원리, 통일성의 원리 등이 나타난다. 학생들은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주로 과거-현재-미래가 모두 나타나는 유형을 선호하고, 화제에 따른 서술보다는 진실성을 우선시하여 연대기적 서술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사건의 상당 부분은 성적, 친구, 이성문제가 차지를 하며, 미래에 대한 설계는 막연한 경향이 있고, 죽음으로 성급하게 결말을 맺는 경우도 있어 1, 2차시에서 창작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계획과 창작은 작품을 완결할 때까지 계속해서 상호소통을 하며 적극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작품의 전후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기타 자서전 쓰기는 자기 또는 타인과의 소통을 통한 삶의 이해, 경험을 통한 미래 설계, 다양한 서사표현, 글쓰기 흥미 상승, 자신감 상승의 효과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6회 특강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의 소규모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이나 대상의 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 김순미, 『인성교육을 위한 자서전 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 김정섭, 『포래협력이 아동의 추론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중성, 『자기주도적 탐구학습 프로그램의 교육적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교육청의 책쓰기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제41권, 2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0.
- 김혜정, 『자이탐색을 위한 자서전 쓰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9.
- 나은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자서전과 자기소개서 쓰기 연계 교육 방안』, 『화법연구』 14권, 한국화법학회, 2009.
- 남민우, 『문학교육 목표 변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고등학교 문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권 22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 노영희·유수옥, 『스케폴딩 전략을 적용한 그림이야기책 만들기 과정에 나타난 유아의 반응』, 『유아교육학논집』 제14권 제5호, 한국영유아교육학회, 2010.
- 린다 스펜스, 황지현 옮김, 『내 인생의 자서전 쓰는 법』, 고즈윈, 2008.
- 문혜경, 『협동학습을 통한 작문지도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변윤희,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의 효과 연구』, 『교육학연구』 제44호, 한국교육학회, 2006.
- 손승남, 『자서전의 교육학적 가치』, 『교육철학』 제28집, 교육철학회, 2002.
- 윤미영, 『중학교 국어 교과서 자서전 쓰기 활동 분석을 통한 수업 설계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이원구,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내일을 여는 책, 1997.
- 임경순, 『서사표현교육론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3.
- 장유정, 『경험의 서사화와 자전적 글쓰기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정혜진, 『자서전 쓰기 교육 방법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천정은, 『자서전쓰기지도방법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최선녀, 『빙고-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동시 창작 지도 방안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최인자, 『자아 정체성 구성활동으로서의 자전적 서사 쓰기』, 『창작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푸른사상, 2001.

프리즈 파펜하임, 황문수 역, 『현대인의 소외』, 문예출판사, 1994.

한윤옥, 『청소년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7.

Philippe Lejeune,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 지성사, 1998.

W. Dilthey, 이한우 역, 『체험·표현·이해』, 책세상, 2009.

Abstract

Education & Example Analysis of
Adolescent's Autobiographical Writing
- Focusing on Writing Future Autobiography -

Choi, Sun-Nyu

As self-publishing is increasing, people who want to write their own autobiography also increase. An autobiography is about and for a life. Education of writing autobiography is important to establish self identity through humanity and literature education in adolescent age, passing through the storm and stress and looking a true self.

Writing autobiography, based on one's own experiences, makes people passe through the regressive, the progressive, the analytical, and the synthetical steps suggested by W. Pinar, reflect their lives, diagnose the present and design the future. This study figures out understanding on autobiography and necessity of education of future autobiographical writing for adolescents and suggests a model for the class. Then, in order to make books, diversification of methods to express narratives will be induced and education will be made to build self identity through communications with the self and the other by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Basically, principles of self-reflection, choice, self integrity, distancing experienced and narrative selves, discovering meaning through self reflection, relationship and unity. Students preferred types to show all tenses of the past, the present and the future for time, focused on truths rather than narrating according to topics and chose chronicle narratives. Considerable amounts of events included sexual, friendship and love-relationships, and for designing future, it tended to be vague or the ending was completed as hasty death. Therefore, during first and second steps, it is important to make an autobiographical writing plan.

And for other effects of writing autobiography, there are understanding of lives through communications with the self or the other, designing future through experiences, various expressions of narratives, advocating interest in writing and improving self-esteem.

Key Word : Autobiography, Future Autobiography, Self Identity, Genre Writing,
Making a Book

최선녀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10-5667-1602

전자우편 : gil275@naver.com

이 논문은 2014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4년 11월 2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3일 게재 확정됨.
--